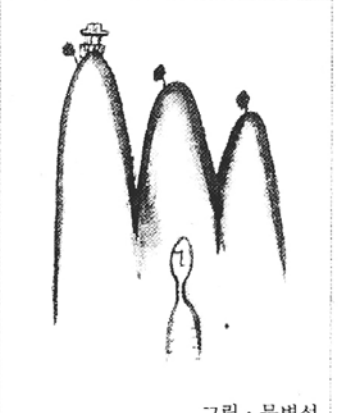


* 위산화상은 처음 백장(百丈)의 문하에서 전좌(典座)를 맡고 있었다. 백장은 대위산(大巍山)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그를 수좌와 함께 대중에게 '말을 내리게' 했다. 격을 벗어 나는 자가 그리로 갈 것이었다. 백장은 물병을 들고, 땅위에 놓으면서 물었다.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무어라고 부르겠느냐." 수좌가 말했다. "장작이라 불러서는 안되지요." 백장이 이번에는 위산에게 물었다. 위산은 물병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다. 백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수좌가 촌놈에게 했다." 하여 위산을 개산조로 삼았다.

한형조 무분별한 발상

67 위산의 물병

* 나 해가 말한다. 위산의 한 시대의 용맹이 백장의 울타리 하나 못 뛰어넘겠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무거움을 위해 가벼움을 버린 것이다. 어인 까닭이냐. 어허, 머리띠를 풀고, 갈을 목에 차고다.



* 송하여 가로피, 조리와 바가지를 던져버리고, 험하게 나아가 어수선한 논의를 잘라버렸다. 백장의 여러 관문도 그를 막지 못했으니, 발 끝에 차여 흘러지는 수많은 부처들. 倒淨瓶: 山和尚, 始在百丈會中充典座. 百丈將違大主人, 乃請向前坐. 大家下語, 出格者可往. 百丈遂將淨瓶, 置地上. 設問云, 不喚喚作淨瓶. 汝喚作甚麼. 首座乃云, 不可喚作淨瓶也. 百丈却問

質)인데 선사께서는 골상(骨相)이라 많은 사람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백장은 아쉽게 입맛을 다셨다. (아마도 백장은 후덕한 부처님 상이 아니라 초기 부대의 고행심처럼 강마르고 가파른 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내 제자 가운데 하나를 보내어라."

사마두라는 제자들의 관심을 두루 감정한 다음, 영우를 추천했다. 백장도 내심 그럴 생각이었던 터라 기뻐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백장과 비슷한 연배의 수좌 화림(華林)이 이의를 제기했다. "분별을 따져야지, 아니 생긴 것 갖고 고르단 말이오." 일리 있는 말이라 백장은 두 사람의 법력을 대중 앞에서 겨루기로 했다. 이것이 이 화두의 배경이다.

줄거리는 별반 부연할 것이 없다. 몇 가지 까다로운 용어나 문장을 짚어 보자. 1) '전좌(典座)'는 부엌일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2) '말을 내리다(下語)'는, 진리나 혹은 선의 비밀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직설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나 동작 등 수단은 무엇이든 좋다. 3) '격(格)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틀에 매이지 않고 진리를 그 자체에 있어 구현한다는 뜻이다. 그럴 수 있게 된 인물을 출격장부(出格丈夫)라 한다.

수많은 부처 발끝에서 흠어지고 영우스님 위산의 주인 되었네

於山, 山乃 倒淨瓶而去. 百丈笑云, 第一座離却山子也. 因命之爲開山. 無事, 山一期之勇, 淨奈談百丈爾. 不出. 檢點將來, 便直不便經. 何故. 脫得盤頭, 捲起鐵枷. 解曰, 下 簾并木杓, 當隔一突忽週迴. 百丈重欄欄不住, 脚失. 出佛如麻.

위산영우(爲山靈祐 771~853)는 백장(720~814)의 수제자이자, 양산(仰山 814~890)과 향암(香巖 ?~898)의 스승이다. 그는 선문의 5대 문과 가운데 하나인 위양종(爲仰宗)의 개창자이다. 오늘 화두는 그때의 인연을 적고 있다.

4) '수좌가 촌놈에게 했다'라고 할 때의 촌놈은 산자(山子)를 번역한 말이다. 여기서의 산(山)이 혹 위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의 이름은 다만 영우였을 뿐이다. 그가 백장의 인가를 받아 대위산의 주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위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산(山)을 일반명사로 보고 산골촌놈 정도로 해석한 것이다. 5) '가벼움을 버리고 무거움을 취했다'는, 조리와 국자를 던지고 한 문과를 열어 수많은 학인들을 이끌었다는 뜻이다. '머리띠를 풀고, 스스로 큰 갈을 목에 차고다' 또 또한 홀로의 삼매를 버리고 그런 시대적 책무를 짊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다.

위산 일의 전후사정을 적어보기로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는 백장의 청규(淸規)를 기억할 것이다. 백장의 문하에는 그런 엄정한 규율과 조율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백장은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던 차, 풍수와 관상에 밝은 사마(司馬)라는 두타(頭陀) 하나가 이런 제안을 했다. "제가 이번에 호남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대위(大巍)라는 산의 지세가 천오봉의 선지식을 품을 만합니다." 백장이 술깃하여 "그래, 그럼 내가 갈까" 하자, 그 두타가 "아닙니다. 그 산은 육질(肉

위산은 본래 인적이 끊긴 험준한 산이었다. 짐승들과 더불어 도토리 밥을 주으며 살았는 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집을 엮고 절을 지어 주었다. 지방장관의 정으로 황제가 동경사(同慶寺)란 이름을 내렸고, 정승 배후(裴休)의 선객(禪客)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양산과 향암이라는 기라성이가 끼어 있었고, 이윽고 위양종이 있게 되었다. <한글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분별 멈추고 집중하자"

'집중'이란 다소 새롭고 젊은 통찰력으로 명확히 본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理想)의 판단과 계획을 멈추고 명상을 통해 단지 이 곳을 본다는 것이다. 아잔나 스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세간에서 우리의 삶을 모습을 돌이키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삼파자나(sampajanna)', 즉 명확하고 바른 이해를 의미한다. 우리가 삼파자나를 실천하는 것은

행동하나에서 동기 찾고 모든일 흘러가게 놓아두라 존재의 본성을 볼 수 있다

정정 2

현재에 집중하며 세간의 변화에 대해 외형 뿐만 아니라 어లు림과 목격과 같은 내용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 하나 하나에도 마음을 보고 그 동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안함을 방한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원 수행자를 찾아왔다. "들고 움직이고 쉬는 일상에서조차 당신은 마음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체 그런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단이 무엇일까요?" 수행자는 "미안마와 인도 접경지역에서 두타행을 할 때입니다. 발걸음에 온 정신을 쏟고 걸어가고 있는데 멍그랑! 멍그랑! 다급한 종소리가 들리지 않겠습

니가. 성난 코끼리 무리가 출몰했다. 고독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전화를 걸든지, 수다를 떠든지, 정처없이 걷는다면 지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을 흐트리는 여러식은 행동일 뿐이다. 평생동안 우리를 따라 다니는 습관도 집중을 방해한다. 공인 의자에 앉아 과거를 생각하며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주·월·년간으로 계획을 짜고 빛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습관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집착이라는 멍에를

에서 매 순간 집중한다는 것은 감각과 마음을 보며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순차적 변화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중'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 감정의 바로 이 순간 우리와 더불어 있으며 지루함이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6

인간의 언어(분별의 세계)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주어진 화두에 분별자로 씌우면서 마지막 단계에 깨우침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히 무분별의 지혜이다. 선을 통한 깨우침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추리·비교·유추의 단계에 있지 않다. 본래 화두 내용은 분별지로는 닿을 수 없는 데 그 내용을 따지고 있다가 때로 몽둥이가 날아오기도 한다(棒喝). 비유와 같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진기(禪機)'를 잡은 경우도 있다. 삼매경(三昧境)의 상태(定)와 깨우침의 지혜도 구별되지 않으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크스님과 대수학자 공동집 분별 초월한 순수직관 불교와 수학의 차이 '보살행'

무분별지였다. 다만 불교적 무분별지가 수학의 경우와 다른 것은 보살행이라는 목적이 다른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자연수의 세계로 돌려보자. 수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가'라는 것은 두 개의 사과의 두 마리의 새에 공통되는 성질인 개수를 갖는다. 즉 '양'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지금 누군가 'n'이라는 수를 말했다면 과연 그것은 n개 또는 n번째의 수를 말한 것일까. 옛부터 수학자들 사이에는 '개수의 수가 먼저 나왔는가, 아니면 순서의 수가 먼저 나왔는가?'의 논쟁이 있었다. 여기에는 개수와 순서의 개념이 연기로 얽혀 있으며 이들의 상반되는 의미가 동시에 인식되어 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 무분별지의 세계이다. 또 자연수 전체가 모여서 생기는 수는 무엇이나, 더 나아가서는 분수까지 포함한 유리수체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수 전체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무분별지일 것이다. 이럴 때에는 기존의 틀(분별)을 넘어서는 무분별지가 작용한다. '침묵여의(沈默如雷; 버락스외와 같은 침묵)'(유미경)와도 같이 큰 깨우침을 얻은 무분별지해는 대수학자의 분별지와도 같은 기반이 있을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와 수학 71 무분별지 김용운

지난호에서는 수학적 귀납법과 범장대사의 자연수에 대한 생각에 공통점이 있음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수호(넓게는 과학)의 지혜는 어디까지 가는 추리, 비교, 유추에 있다. 추리·비교·유추는 대상들 사이에 있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는 작업, 즉 분별의 세계에 있다. 한편 불교의 근본적인 지혜는 분별을 하지 않는 무분별(無分別)의 지혜이다. 여기에서 '무분별지를 근원으로 삼는 불교적 지(智)와 수학의 분별지에 왜 공통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나온다. 불교적인 무분별지는 단순히 분별을 초월한 지혜라고 할 수 없다. 분별을 넘어선 그 부분이 곧 수도와 자비를 포함한 불교적 행위(보살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합의 대찰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부손 말이라도 좋으니 해보시오. 나는 그 말이 잘못임을 입증해 보이겠소. 또 다음에는 처음 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해보시오. 역시 그것도 부정해 보겠소."

크스님이 깨우침을 얻은 일에 관해서는 많은 신비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때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미숙한 사람이 엉뚱하게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다고 내세우는 것을 야호선(野狐禪)의 경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무분무상의 경지가 깨우침에 직접 이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연수에 관한 귀납법적 원리를 파악한 '삼현연기 무애법문의(十玄緣起無碍法門義)'와 같은 철리를 얻은 법창대사는 결코 무분무상만을 한 것은 아니다. 여기

이 투철하였기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에 내재하는 연기의 이(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창은 공(空)철학의 기반에서 전우주의 끝까지를 날같이 파악하고 있다. 법창의 자연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理)를 파악하는 것은 날같이 세우는 것을 야호선(野狐禪)의 경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무분무상의 경지가 깨우침에 직접 이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연수에 관한 귀납법적 원리를 파악한 '삼현연기 무애법문의(十玄緣起無碍法門義)'와 같은 철리를 얻은 법창대사는 결코 무분무상만을 한 것은 아니다. 여기

일타크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듯,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배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크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오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크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크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크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사람의 환경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를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수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크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저를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하십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판 / 3,500원

일타 크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無碍)를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크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